

금년 여름의 기상 전망

남 기 현
(기상청 예보관리과장)

금년 여름철의 기상 전망

지난 봄철 우리나라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았던 관계로 비교적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다. 따라서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으나 기온의 일교차가 큰 편이었다. 그리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3월 상순 후반에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를 보였고, 4월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이 많아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였다.

그리고 5월 초에는 일시적으로 고온현상이 있었으며, 5월 1일 영남내륙 일부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30℃가 넘어 5월초 기온으로서는 그 지방의 기상 관측 사상 최고의 기온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상은 평년과 비슷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기상 전망은 장마가 6월 하순초에 남부지방으로부터 시작되어 약 1개월간 계속되다 7월 하순경에 완전히 끝날것으로 예상되며, 태풍은 8월까지 2개 정도가 예상되지만 태풍 시즌 전반으로 볼 때는 역시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날씨는 6월 하순까지는 비교적 좋은 날이 많겠고,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약 한달간은 장마기간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겠으며,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맑고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의 총 강수량은 500~800mm 정도가 되겠으며, 이중 장마기간은 약 200~500mm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기온은 전기간으로 보면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7월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기상 전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6월은 대체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겠고, 동해안 지방은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겠으며, 하순 초반에 들면서 남부지방으로 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6월 하순부터는 점차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지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은 분포가 되겠고, 강수량은 평년(40~100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월은 전국적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날씨도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겠으며, 특히 2차례 정도의 호우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중 강수량은 평년(200~350mm)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분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그리고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될 것이므로 맑고 무더운 날이 많겠지만, 가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대기가 불안정하여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겠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국지적으로 1~2차례의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있다.

8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한 200~300mm의 분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정보의 생산과 활용

기상청은 신속 정확한 기상 지원으로 기상 재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방재 기상 지원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기상 변화에 대한 감시 기능을 보장하고, 예보의 신속·정확화와 대국민 기상 지원의 다양화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상청

은 지속적으로 기상 관측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상 관측망은 기상 위성(NOAA, GMS)수신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국 레이더 관측망(5개소), 자동 기상관측소(AWS)3백28개소와 기상대, 관측소(72개소)등으로 전국의 기상 변화를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기상 위성과 레이더 관측 자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기상 변화의 상세한 분석을 도모하고, AWS 72대를 증설하여 전국의 자동 기상관측소를 4백개소로 확충하고자 한다.

다음은 예보기법의 개선 보장을 통해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상청의 예보는 많이 정확해 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는 최근 몇년간에 걸친 기상 장비의 보강, 기상 업무의 전산화, 자동화와 예보 기법의 개발 및 개

(여름철 일 최고 기온 및 월 강수량)

○ 일 최고 기온(℃)

구분	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6월	26.6	24.6	27.2	27.4	26.9	27.8	23.7	24.5
7월	28.5	27.7	29.4	30.0	29.4	30.2	27.1	28.9
8월	29.5	28.5	30.1	31.0	30.8	31.3	29.3	29.8
9월	25.5	24.1	25.7	26.5	26.5	26.3	25.8	25.8

○ 월 강수량(mm)

구분	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6월	134	111	154	147	183	129	224	187
7월	369	217	317	279	283	234	257	230
8월	269	262	278	245	236	193	204	214
9월	169	216	155	144	150	123	187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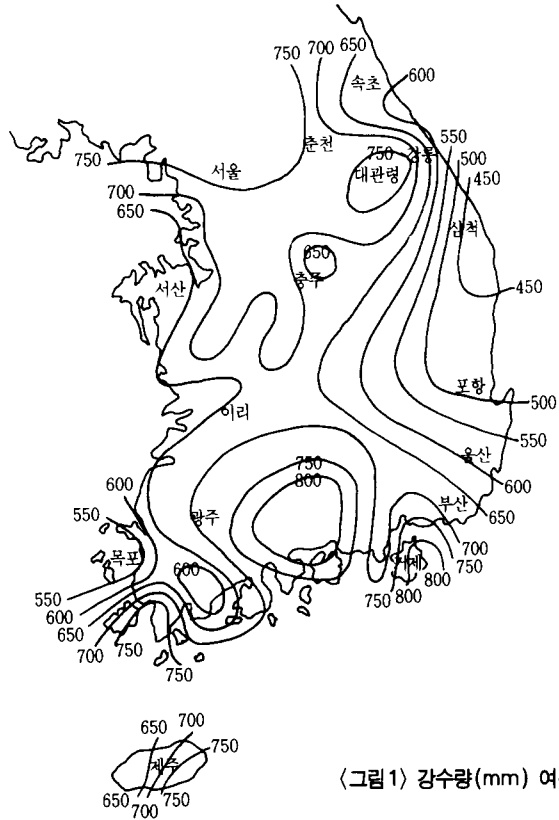
선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년에도 신속·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서 수치예보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과 기존 모델의 개선을 통해 예보 분석 자료의 정확도

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국민 기상 정보 지원을 더욱 다양화 하고, 신속화 하

기 위하여 악기상 현상이 발생할 때는 상세 기상 실황 정보를 매 3시간 단위로 반복하여 발표하므로서 국민이 기상 변화의 이동 성쇠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기



(그림1) 강수량(mm) 여름(6-8월)

상청 본청에 기상 상담실을 설치하여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기상청에서 생산된 기상 정보는 방송, 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하고 있으며, 131번 기상 전화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TV 3사와 7개 라디오의 16개 주파수로 하루 평균 80여회에 걸쳐 일기 예보를 방송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일반 전화 131번을 누르면 그 지방의 일기예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름철은 언제, 어디든지 국지적인 집중호우를 비롯한 악기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 예보를 청취하고 이에 대처하여 재해없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